

‘객관적 폭력’의 비가시성과 폐제되는 식모들의 목소리

- 조선작과 최일남의 소설을 중심으로

김영삼* | 전남대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무작정 상경 소녀’들의 경로
- II. ‘가정담론’의 허구성과 차용되는 식모들의 목소리
- III. 계몽적 주체로서의 남성과 감정 교환의 거부
- IV. 정착의 실패와 옹크린 국가폭력
- V. ‘주관적 폭력’과 ‘객관적 폭력’
- VI. 나오는 말 : ‘그녀들은 말할 수 있는가?’

I. 들어가는 말: ‘무작정 상경 소녀’들의 경로

1960~70년대 서울역은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¹⁾들에게 서울 입성의 첫 관문이었다. 이곳을 홀몸으로 통과한 이동인구 중 대부분이 29세 이전의 미혼남녀들이었고, 특히 여성 단독 인구 중 절반을 15~19세 사이의 어린 여성들이 차지했다.²⁾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력도 낮은 그녀들에게 식모는 숙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동신대학교 시간강사

1)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라는 표현은 가난 탈출을 목표로 서울로 입성했던 미성년들을 지칭하는 일반적 표현이었다. 일례로 1965년 경향신문은 “유혹의 계절-2월에 접어들며-무작정 상경”이란 제목을 뽑아냈고, 1967년 4월호 『여성』지에 실린 『윤락여성의 선도를 위한 좌담회』라는 글에서는 “불건전한 가정으로부터 뛰어나오는 무작정 상경 소녀들을 역전에서 상담해서 귀향시키거나 식모 등의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식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직종이었다.³⁾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물론 단칸짜리 셋방살이, 판자집 살림에서도 환경과 가정 형편은 염두에도 없다는 듯이 서로 다투어 너도나도 식모를 두고 있다”⁴⁾거나, “밥만 굶지 않고 사는 서울의 가정이라면 모두 식모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⁵⁾있다는 표현을 보아도 식모가 무작정 상경 소녀들의 보편적인 일터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노동 탐색비용이 적은 만큼 식모들의 임금은 최저 수준이었다.⁶⁾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8시간에 가까웠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노동환경보다 더 식모들을 괴롭힌 것은 타자로 취급받고 배제된다는 현실이었다. 식모들은 가정 내에서 ‘잠재적인 범죄자’⁷⁾였고, 남자 집주인의 성폭력에 노

- 2) 1974년 농촌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농촌을 떠날 당시의 나이가 13세 이하(9.0%), 14~15세(9.3%), 18~19세(40.4%), 20세 이상(14%)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86%가 20세 이전에 서울로 올라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이촌 여성의 도시생활적응 및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 1974, 17쪽/유중주, 『인구의 도시집중 문제』, 『가족계획』 38, 1967, 13쪽.
- 3) 서울시 부녀과에서 조사한 서울로 올라온 여성들의 희망직업을 보면 직공 다음으로 식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형남, 『주부생활』, 1969년 12월호, 164쪽.

직공	식모	급사	청소부	보모	사무원	점원	계
1130	656	54	45	25	51	123	2084

- 4) 장창옥, 『식모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자』, 『여원』, 1957년 11월호, 59쪽.
- 5) 김인건, 『식모, 이 변함없는 인권의 푸대접』, 『여원』, 1966년 5월호, 330쪽.
- 6) 식모들의 낮은 임금은 당시 서울의 많은 집들이 식모를 둘 수 있는 이유였다. 1964년 당시 쇠고기 한근(600g) 129원, 연탄 10개 76원, 쌀 3천 659원이었는데 카톨릭 청년회에서 1964년 조사한 식모들의 임금이 대체로 500원에서 600원 정도였다. (『여원』, 1966년 5월호, 331쪽.) 김정화, 『1960년대 여성노동 - 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1호, 2002, 84쪽.
- 7) 식모의 절도에 대한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로는, 『달아난 절도 식모 3일간 추적 체포』 (『조선일보』 1970년 1월 13일자), 『주인집 아들 피살』 (『조선일보』 1971년 10월 31일자), 『주인집에 협박 편지 쓴 식모』 (『조선일보』 1970년 10월 1일자), 『10대 식모 돈 내라고 주인 때려』 (『조선일보』 1974년 3월 19일자), 『돈 훔친 식모의 강도극』 (『조선일보』 1970년 3월 13일자), 『주인 아이 엮고 식모 가출』 (『조선일보』 1972년 5월 4일자) 등이 있다.

출된 존재였지만 오히려 그런 이유로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잠재적인 윤락녀’였으며, 근대적 문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야만이었다. 그녀들은 ‘잠재적인 윤락녀’로서 집중적인 요보호의 대상⁸⁾이었다. 이는 무작정 상경 소녀들의 일반적 이동 경로가 ‘식모-여공 또는 여차장-윤락여성’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식모-윤락여성’⁹⁾로 이어지는 과정은 무작정 상경 소녀들의 불안하고 취약했던 삶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1960년대 후반기 여성담론은 근대적 가정의 수립이라는 기조 아래 식모들을 가정 내 불순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원』에서는 식모를 모성 발휘의 기회를 빼앗는 가정 침입자로 규정하고 있다.¹⁰⁾ “집집마다 두고 있는 식모를 되도록 없애고 자신이 살림하며 가옥구조에 힘쓰자”¹¹⁾라는 슬로건은 근대적 가정만들기라는 담론화 과정에서 식모가 어떻게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이른바 ‘식모폐지론’¹²⁾은 핵가족 중심의 중산층

- 8) 요보호상황에 있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설정되면서, ‘가정집 식모, 버스 여차장, 밤거리의 여성, 과중 노동을 하고 있는 농촌여성’ 등이 해당되었다. 기존의 부녀 행정이 관심을 지니지 않았던 하위계층들을 요보호 여성의 범주로 확산한다는 것은 이들을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포괄하는 의미도 있었다. 김원,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식모’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1호, 2004, 197~198쪽.
- 9) 1964년 보건사회부 통계를 보면, 매춘여성 19,986명 가운데 2,230명(11.4%)이 식모출신이었으며, 1965년 동두천 지역 매춘여성 198명 중 전직이 식모였던 여성이 52명(26.2%)이었다.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1975.6)의 조사도 윤락여성의 전직을 경제적 소득이 낮고 남성들의 유혹을 받기 쉬운 직종인 여공(15%), 식모(10%) 등으로 발표했다. 김원, 같은 책, 200쪽에서 재인용.
- 10) 『여원』은 근대화를 위해 각 개인(여성)들의 의식각성을 통해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미덕과 서구적인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식모의 존재를 가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로는, 서연주, 『여성 소외 계층에 대한 담론 형성 양상 연구-『여원』에 나타난 사회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 2007, 100~107쪽.
- 11) 『여성』, 1965년 10월호, 『한국주부의 정신적 무장』. 이 시기 『여성』은 ‘알뜰한 주부’가 가정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모습을 이상적 형태로 내세우면서, ‘알뜰한 생활’이란 곧 ‘식모 없는 가계운영’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관련된 기사로, 『알뜰한 주부시상식을 마치며, 『여성』, 1969년 4월호. 『알뜰한 주부 시상, 특상에 이인화 여사, 『여성』, 1968년 3월호.
- 12) 식모폐지론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서 김원, 앞의 책, 209~221쪽 참조.

가족 형태의 양성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육아의 필요성에서 촉발되었다. ‘가정생활의 과학화’라는 입장으로 표현되는 당시 부녀행정의 목표는 ‘과학과 윤리가 조화되는 가정’으로 상징화되었다.¹³⁾ 한 때 식모는 가사 노동의 조력자 또는 근대화 도시의 하위노동자로서 기능했지만, 본래 그녀들은 가족 구성원으로 썬해질 수 없었고 주인집 자녀의 교육을 담당할 지적 능력도 결여되어 있었다. ‘가정’과 ‘과학’이라는 표현에는 식모들의 자리가 없었다. ‘식모폐지론’은 근대적 여성담론의 형성과정에서 파생된 배제적 논리의 흔적이다.

‘식모-창녀’로 표상되는 무작정 상경 소녀들은 제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던 타자이자 하위주체들이었고, 이들이 폐제되는 과정에서 근대화와 국가의 폭력적 논리가 남기는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의 목록이 풍부한 편은 아니다. 식모들의 노동환경과 삶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로는 김정화와 김원의 연구가 많은 도움이 주고 있다. 김정화의 논문은 1960년대 식모들을 여성하위주체로 호명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김원의 글은 식모가 당시 여성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제되고 있는지를 사회학적 차원에서 잘 증명하고 있다. 서연주의 연구는 당시 도시 중산층 여성들의 잡지였던 『여원』을 중심으로 여성 소외계층들에 대한 담론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 잡지를 통한 연구로는 『여성』지를 중심으로 근대화 프로젝트의 단면을 연구한 신건¹⁴⁾의 논문이 있다.

식모에 대한 문학 쪽의 연구로는 오창은과 박수현, 손윤권, 김문정, 서정자의 논문이 있다.¹⁵⁾ 손윤권의 논문은 상경여성들의 사회적 저평가와 남성

13) 가정 담론의 형성에서 ‘과학’이라는 용어는 마치 근대화를 상징하는 표지처럼 쓰이지만, 그 내용과 실천적 방안은 봉건적이며 비도시적인 것에 배타적일 뿐이다. 황정미,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1960~70년대의 한국 부녀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58~59쪽.

14) 신건, 『1960~19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15) 오창은, 『도시의 불안과 여성하위주체 - 1970년대 ‘식모’ 형상화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2, 2013.

박수현, 『1970년대 식모와 남성 작가의 소설』, 한국언어문학 제91집, 2014.

손윤권,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식모의 양상』, 강원인문논총 제17집, 2007.

들의 성적 폭력에 의해 매춘으로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김문정의 논문은 유사한 논리를 당시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손창섭의 『길』, 조선작의 『미스양의 모험』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박수현은 이에 동의하면서 여성하위주체들의 전략을 비판하는 남성작가들의 시선에 이미 성적 시선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오창은의 논문은 식모가 화자인 소설을 중심으로 도시 중산층의 불안의식을 읽어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그러나 식모들의 성적 착취와 매춘으로 전락한 원인을 남성적 폭력으로만 보는 것은 입체적이지 않다. 그녀들이 봉건적 위계질서 속에서 주인 남성들의 성적 정신적 폭력의 대상이 되어왔음은 분명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식모들의 전략과 폐제(閉除, foreclosure)¹⁶⁾에는 근대적 담론과 국가적 폭력의 논리가 숨어있다. 특히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가 남성폭력의 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때문에 이 글은 식모-창녀로 표상되는 도시의 여성하위주체들이 폐제되는 방식을 국가적 폭력의 차원과 문학적 차원에서 다루려 한다. 식모를 화자로 내세우는 최일남의 『춘자의 사계』와 『너무 큰 나무』를 중심으로 식모들이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에서 폐제되는 모습에 주목하려 한다.¹⁷⁾ 또 조선작의 『지사총』과 『영자의 전성

김문정, 『1960,70년대 서울과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의 서사』, 상허학보 41집, 2014.

서정자, 『가사노동 담론을 통해서 본 여성이미지 - 191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 여성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19, 1997.

16) ‘폐제(閉除, foreclosure)’라는 용어는 가야트리 스피박의 『포스트 식민이성 비판』에서 차용했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스피박은 비유적 주체의 주체화를 가로막고 배제한다는 뜻으로 ‘foreclosure’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서구의 제국주의가 제3세계 여성하위주체들을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는데 이용한 후, 다시 그녀들이 스스로를 주체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버리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거나 섀범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는 ‘배제’를 쓰고 버리는 의미로는 ‘폐제’를 구별해서 사용함으로써, 식모와 같은 하위주체들이 도시화와 근대화 속에 웅크린 비가시적인 폭력에서 어떻게 누락되고 있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가야트리 스피박, 테헤숙·박미선 옮김, 『포스트 식민이성 비판』, 갈무리, 2005, 26쪽.

17) 식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일남의 두 작품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식모를 화자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때문에 식모와 같은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를 문학적 어떤 방식으로 차용하고 있는가에 대

시대」 연작¹⁸⁾을 통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표상되는 국가적 폭력과 여성하위주체들을 관리하고 배제하는 국가의 행정 명령이 무작정 상경 소녀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폐제시키는가를 ‘주관적 폭력’과 ‘객관적 폭력’의 구분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가정담론’의 허구성과 차용되는 식모들의 목소리

최일남의 소설들은 근대적 가정담론의 허위성을 식모를 화자로 내세워 낯낱이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너무 큰 나무』¹⁹⁾(1977)와 『춘자의 사계』²⁰⁾(1979)는 가정 내 식모의 자리가 많이 축소된 1970년대 후반에 발표한 작품들이다. 그러다 보니 식모들의 불안한 삶과 폭력에 노출된 양상에 주목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형상화와 달리, 도시 중산층 부유한 가정의 부조리와 모순을 가정 내 존재 달리 말해 ‘내부의 외부자’라는 시선에서 내밀하게 포착하고 있다.

『춘자의 사계』는 16세의 나이로 서울로 상경한 이래 자신이 경험했던 열군데의 가정에 대한 나름의 “은퇴”(107) 보고서 형식 째 된다. 춘자는 무지한 화자의 입장에서 정부 고위 관료 출신 가정 또는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가정들이 보여주는 모순을 폭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령, 주인집 부부들의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생각들은 이러하다.

“해가족이다 뭐다 해서,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역시 대화에 있다고 봅니다. 대화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

한 질문의 시작점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18)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는 식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기본적인 분석대상이면서 암묵적인 출발지점에 해당한다. 때문에 본 글에서 이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는 이유는 남성폭력의 관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 최일남, 『너무 큰 나무』, 『꿈길과 말길 외』(한국소설문학대계 41), 동아출판사, 1995. 이후 작품과 쪽수만 표기.

20) 최일남, 『춘자의 사계』, 『꿈길과 말길 외』(한국소설문학대계 41), 동아출판사, 1995. 이후 작품과 쪽수만 표기.

이니까 이제는 신선미가 없는 단어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으나,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듯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간은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끊임없는 대화로 서로 감정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없는 가정, 그것은 죽은 가정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춘자의 사계』, 143)

“가정부 자신이나 가정부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이나 양자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부는 대개 처지가 불우하고 피해의식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니까, 주인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우선 그들을 믿고 인간적으로 대우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임금을 많이 주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 만난 남남끼리라 하더라도 그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정신적인 면에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운운.”(『춘자의 사계』, 144)

첫 번째 인용은 춘자가 세 번째로 일했던 어느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있다 는 주인집 남자가 쓴 신문 기사의 내용이다. ‘핵가족’과 ‘대화’라는 두 단어로 집약되는 이 내용은 앞서 말한 근대화 시기 가정담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지만, 실상 이 가족의 일상에서 대화를 찾기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춘자는 아저씨의 신문 기사 내용을 읽고서, “아저씨가 자기 집안을 빗대어서 한 말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자기 집안을 가족 간에 대화가 만발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 해석이 잘 안 되었”다면서 이런 말을 아저씨가 “공개석상에서 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앞뒤의 어투가 자기도 그러고 있으니 남들도 그런 대화를 통해 가정의 평화를 찾으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놀랐”(143)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용한 부분은 서양에서 학위를 마친 박사이면서 여성단체의 간부로 있는 아주머니의 말인데, 이에 대한 춘자는 아주머니가 가정과 밖에서 보여주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동과 말에 대해 “사기”(144)라고 응수한다. 아주머니는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식모를 대해줄 것을 공식적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실상 자신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한 공간에 서식하는 불순물일 뿐이었다는 것이 그 판단의 근거이다. 아주머니는 춘자를 처음 맞아들일 때 그녀에게 식모가 지켜야 할 수칙들을 열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춘자는 위생학적 관리대상이며²¹⁾, 그

리고 공간적으로 가정 내 외부에 존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바나나’의 개수를 세고 출근한다든가, 외제 커피를 자신의 방안에 놔둔다든가 하는 모습들(145) 또한 대외적인 언어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생과 음식물 그리고 배설(화장실)과 관련된 행위는 도시와 시골, 근대와 야만의 표식을 부여하는 장치들이었다.²²⁾ 전근대와 근대를 구분 짓고 시골과 도시의 차이를 구분하는 이 장치들은, 동양과 야만을 불결한 존재 또는 계몽해야 할 존재로 보았던 서구 식민주의의 논리와 닮아있다. 특히 식모의 생리에 대한 태도는 식모들의 생물학적 여성성마저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그녀들에 대한 위계적 시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이런 차이와 구별짓기식 행위들은 모두 근대적 가정의 형태를 담론화하던 당시의 촌극으로 볼 수 있고, 최일남의 소설은 이를 적절하게 식모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이 밖에도 소설에서 근대적 가족담론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집들의 내부 사정은 겉보기와 다른 것들이 많았다. 핵가족화되는 근대화 시기의 가족의 모습을 겉과 속이 다른 보여주기 식의 거짓²³⁾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가의

21) 식모들이 서울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요구된 것은 바로 이런 위생학적 관리였다. 특히 이제 막 여성의 신체로 성장할 시기의 식모들은 생리에 대한 처리가 시골과 도시에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최일남의 소설의 한 부분은 피문은 ‘서답’을 뺀고 있는 식모가 주인집 식구들에게 불결하게 처리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생리가 시작된다는 것은 마약 여자로서의 구실이나 자격을 갖추어가는 징조로 불진대, 거기에는 마땅히 어떤 의미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도, 나는 여자로서의 출발과 최초의 직업(?)을 갖게 된 첫날을, 어처구니없는 모멸 속에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너무 큰 나무』, 113)

22) 처음 식모로 들어가게 된 집안의 화장실을 찾지 못한다거나 사용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등의 모습과(『춘자의 사계』, 112), 치즈나 케첩과 같은 외제 식품의 맛과 정제 때문에 주인집 아이들의 우스갯거리가 되는 모습(『춘자의 사계』, 114)들이 대표적이다.

23) 『춘자의 사계』에 등장하는 할아버지를 침언할 수 있겠다. 주인댁 내외에게 할아버지는 위생적으로 경제적으로 타자일 뿐이다. 물론 다른 자식들의 물질적 요구를 막는 방패의 수단으로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방패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병든 노인을 부양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효부가 되고 있지만 말이다.

“할아버지는 이 집 식구들이 밖에서 돌아오는 저녁 무렵부터, 식구들이 다시 외

서술은 도시 중산층의 모순과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식모는 이를 충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의아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주인집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폭로함으로써 작가가 부여한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1970년대의 현실세계에서 식모는 그 자리를 잃어가면서 배제되지만, 소설에서 식모는 그들을 폐기처분했던 근대화 가족담론을 해체하면서 그 실상을 폭로하는 화자로 재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근대적 가족의 형성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으려는 시대적 필요성과 근대적 여성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만들어야 했던 여성 담론들은 체계적으로 식모와 같은 여성하위주체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그리고 문학은 배제된 식모들의 목소리를 빌려와 그런 근대 담론들의 비현실성을 폭로하는 데 동원했다. 특히 최일남의 소설은 식모를 화자로 내세우면서 해체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외부자로서 ‘가정담론’이 추구하는 중산층 가정의 허구성을 폭로하던 식모 화자는 이내 모순적인 목소리를 낸다.

(주인 아주머니는) 어쩌다 하루 이들 거르는 수도 있지만 거의 매일 외출이다. 주부가 살림을 꾸려 나가자니까 할 일도 많고, 살 것도 많고, 계도 여러 구찌 들었을 테니까 자연히 외출도 찾아지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다.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을 것이, 한집에 살다 보면 말을 안 해도 대충 나로서는 짐작이 가는 것이다. 그 내 알량한 육감으로도, 아주머니는 꼭 긴요한 불일이 생겨서 나가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날의 화장의 정도, 옷 모양으로 얼추 아주머니의 행방을 때려잡을 수 있는데, 그 내 알량한 추리에 따르면, 아주머니의 외출은 불 일 반, 바람 쏘이고 친구 만나 입 놀리는 일이 반반인 것이다. (『너무 큰 나무』, 89)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받고 외출을 한다. ‘화장’, ‘팬티 스타킹’, ‘부츠’,

출하는 다음날 아침 나절까지는 거의 자기 방에 감금되다시피 했습니다. 어쩌다가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아이들도, 또 나왔네, 들어가 어서, 하면서 할 아버지를 방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춘자의 사계』, 117) “요컨대 할아버지는 집 안에서는 아무한테서도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서도, 주인 내외분의 재산을 축내려드는 형제들에 대한 방패나 효심을 선전하는 전시용으로 그런대로 훌륭한 구실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춘자의 사계』, 121)

‘호텔 커피숍’(88)과 같은 언어들은 당시 여성들의 소비패턴과 생활상을 드러내주는 기호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화자인 식모의 ‘볼일 반, 바람 쓰이고 친구 만나 입 놀리는 일이 반반’이라는 어조는 당시 여성지들이 조직하고자 했던 ‘현모양처형’의 주부상²⁴과는 전혀 다르다는 비아냥을 함축하고 있다. 이 소설의 식모는 이런 주인 아주머니의 일상을 부러워하거나 객관적 감정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무위도식하는 가정주부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입장에 가깝다.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모성을 지닌 현모양처형이라는 여성 담론의 주장을 그대로 내면화한 시선이 식모의 목소리에 담겨 있다. 식모를 소설의 화자로 내세우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식모폐지론을 부추겼던 가정담론의 논리를 식모의 목소리가 재현하고 있다. 가정주부들의 과소비를 비판하면서 가정으로의 귀환을 요구했던 당시 여성 잡지들에서의 논조를 상기해보는다면, 무위도식하는 주인집 여자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식모들의 목소리는 하위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읽히기보다 중산층의 허구성과 소시민적 물질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작가의 대리보충에 가까워 보인다. 식모라는 존재의 생존위기를 불러온 가정담론의 논리를 그녀들의 입으로 재현하게 한 이러한 글쓰기의 차용방식은 차용대상인 식모들의 상황을 재현하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최일남의 「너무 큰 나무」의 아래와 같은 서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나는 어쩐지 심순이나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저씨의 일을 들먹일 때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다고 뭐 남의 집 애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대거나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니라 해도 남들이 우리 아저씨를 속마음이야 어떻든, 우선 알아주고 우리러분다는 일이 은근슬쩍 내 기분을 돋우어 주는 건 사실이었다. 더구나 장난감 공장을 차려서 돈캐나 벌었다

24) 「여대생을 위한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여성의 의무와 책임」(『여성』, 1965년 6월호.)라는 기사에 보면, 이 시대 여성 지도자들은 여대생들이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중산층 가정의 주부들과 같은 유희 노동력이 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남편에게 이해와 애정을 베풀어줄 사람은 아내이다. 가정은 안식처이다. 경쟁에 시달리고 피로한 가족구성원들에게 애정으로 힘을 북돋아주고 나아가서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일으켜주며 실지에 있어서 창조력과 합리성으로 근대화의 환경적 조건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의 근대화에 있어서의 역할...”

는 심순이네 아저씨가 우리 것보다 좋은 외제 자가용을 뽐뽐 몰고 다니면서, 우리 아저씨만 보면 기가 팍 죽어서, 허리를 구십도는 너무하고 칠십도쯤 꺾어서 인사하는 걸 보면 괜히 나도 기분이 으쓱해지고 한편으로 고소한 생각까지 들었다. (『너무 큰 나무』, 91)

이 소설의 ‘아저씨’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텔레비전과 신문에 자주 나오는 ‘명사’다. 우편물에 주소가 없고 이름만 있어도 우체부 아저씨가 “명사 댁인데 내가 그걸 몰라.”(89)라고 하면서 당연스레 편지가 도착하는 집의 주인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족들과 대화도 없고,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반상회도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속물적인 지식인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명사댁 식모인 화자는 주인 아저씨 덕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모양이다. 목소리도 점잖게 전화를 받고, 옆집 식모 심순이도 자신보다 아래로 취급하려한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무관하게 주인집의 위계를 내적으로 흡수한 모습이다. 이는 당시 식모들의 속물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식모들의 목소리를 차용하는 문학적 전략이 오히려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를 근대화 논의에 포섭시켜버리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이다.

스피박은 『포스트 식민 이성 비판』에서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에게 토착문명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존재인 ‘토착정보원’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폐제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토착정보원들이 서구 제국주의의 논리를 교육받고 이를 내면화한 존재들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일례로 칸트의 텍스트에서 뉴홀랜드인들이나 푸에고인들과 같은 하위주체들은 유럽 제국주의의 확장의 논리와 유럽인종의 존재 목적을 밝혀주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토착정보원들은 칸트적 의미에서 유럽인이라는 주체를 확립하는 ‘대리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다음 폐제된다는 점이 스피박의 핵심 논점이다. 그녀는 다양한 포스트식민 연구가 피식민지인의 삶을 재현하고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거꾸로 식민주의적 지식생산에 복무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⁵⁾ 결국 의도와 다르게 토착정보원은 제국주의와 유럽의 정반대편에서 검은 피부의 가면을 쓴 마중물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와 유사하게 최일남의 소설 속 식모 화자들은 중산층 여성들의 과소비 행태와 소시민적 모습을 비판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근대적 가정담론을 강

25) 가야트리 스피박, 앞의 책, 38~43쪽.

화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식모들은 하위주체의 삶을 증명하고 묘사하는 기능에서 멀어지면서 자신들을 배제하는 근대적 가정담론을 강화하는 대리보충적 기능으로 폐제되고 있는 것이다. 식모는 토착정보원처럼 쓰이고 버려지고 있다.

또한 식모들은 리얼리즘적 소설 쓰기의 한 방식을 위해 차용되고 있다. 이때 식모들의 목소리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970년대 중산층의 현실을 담아내야 한다는 무의식적 정언명령이 식모라는 시선을 포착하게 된 것에 가깝다. 식모들은 중산층 가정 내에 위치하면서 외부의 시선을 가진 존재들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소시민이 되어가는 당대의 단면을 날카롭게 포착할 수 있는 시공간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피해자로서의 민중이나 사회적 하위주체들을 담아내야 한다는 하나의 전형적 소설 작법의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가깝다. 식모-창녀와 같은 도시 주변부의 여성하위주체들이 근대화 담론의 폭력성과 불안의식을 표현하기 적합한 정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스피박이 서양철학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우려하듯이, 소설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형화된 형상은 다양하고 특수한 차이들을 폐쇄적인 연결고리들로 환원시켜 버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상을 정형화하는 것은 동일한 이념과 사상을 차이로 묶으려는 고착된 사유의 주요한 전략이기 때문이다.²⁶⁾ 또한 프란츠 파농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정형화된 형상은 식모와 같은 하위주체들을 “선입견의 영원한 피해자”로 추락시킬 수도 있다.²⁷⁾ 여기서 다룬 몇 개의 작품들에서 식모와 윤락녀로 불리는 그녀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문학이 그들을 형상화할 때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윤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윤리적 물음을 남성폭력과 국가폭력의 뒤틀린 연관성 속에서 제기하기 위해 잠시 조선작의 소설을 경유한 후 설명하려 한다.

26) 호미 바바,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146쪽.

27) 흑인은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흑인들이 동일한 정형으로 작품에 등장하게 되지만, 이런 정형화된 이미지는 곧바로 박제화의 덫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프란츠 파농의 비판을 상기해야 한다. 프란츠 파농,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44쪽.

Ⅲ. 계몽적 주체로서의 남성과 감정 교환의 거부

식모의 존재는 언제든지 가정의 성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윤락녀’로 취급되었다. 하위계층 여성의 신분상승욕망과 결합한 형태도 더러 존재하지만²⁸⁾, 대부분 남성의 폭력적인 성 착취에 의해 주인집 남자와 아직 미혼인 식모는 위계적인 관계에 놓인다.²⁹⁾ 식모에 대한 성착취의 관계는 전상국의 「전야」³⁰⁾나 최일남의 「가을 나들이」와 같이 식모를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들에서 여성하위주체들의 비극적인 삶을 드러내는 가장 일반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많지 않은 식모들에 대한 연구에서 이 점은 여성하위주체들을 남성들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로 규정짓는데 주요하게 인용되고 있다. 특히 「영자의 전성시대」는 가장 대표적인 피해 여성에 대한 변론으로 읽히고 있다. 대부분 여성하위주체를 피해자로 보고, 가해자를 돈과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 집 남성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인 관계 설정은 사건 주체들의 다양하고 특수한 현실 인식과 관계를 간과하게 한다. 조선작의 「지사총」과 「영자의 전성시대」의 소설적 의의는 이런 이분법적인 관계 너머를 가리키고 있어 보인다. 이 장에서는 「지사총」과 「영자의 전성시대」에 등장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주목

28) 일례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에 등장하는 복실 어머니는 서린동 영감의 후실로 들어가 집과 다방을 착실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신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상품화하고 부유한 주인 남자의 재산과 교환관계를 맺은 것이다.

29) “아, 식모살이라면 지긋지긋했어. 식모를 뭐 제 집 요강단지로 아는지, 이놈도 올라타고 저놈도 올라타고 글썽 그러려 들더라니까요. 하룻밤은 주인놈이 덤벼들면 다음날은 꼭지에 피도 안 마른 아들녀석이 지랄발광이고…… 내 미쳐 죽지 미쳐 죽어…….” 식모살이를 네 군데나 옮겨 다니며 살았지만 모두가 그 모양이었노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을 하숙 치는 집에도 좀 살아 봤는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젠 뭐 더 악머구리떼 같았노라고 말했다. 그래서 식모살이를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126쪽.)

30) 전상국의 「전야」의 춘자는 어릴 때 생모를 잃고 노름과 술에 빠진 아버지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하면서 살다가 원주로 식모살이를 나간다. 춘자는 원주의 부잣집에서 처음 주인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한다. 그리고 현재도 주인아저씨의 “근지러운 시선”(『우상의 눈물』, 민음사, 1980, 148쪽)과 성추행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여성하위주체에 대한 남성들의 폭력으로 전이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적 국가권력이 여성하위주체들의 작은 희망(정착)과 남성들의 죄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는지를 먼저 제시하려 한다.

식모를 그만두고 “여차장을 하다가 만원버스에서 떨어져 마침 달려든 삼륜차 앞바퀴에 팔 한 짝을 잃게”(『영자의 전성시대』, 126) 된 사연을 나중에야 영자는 “신경질도 안 부리고 즐줄” 진술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저간의 사연을 내보이지 않았다.

“왜 그랬어. 어찌다가 팔뚝을 그랬느냐 말아야.”

“시시한 이야기는 진짜로 집어치우라니까 그러네, 신경질나게.”

영자가 짜증을 부리며 말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전쟁판에까지 갔다 온 나도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데 진짜 무슨 일이야?”

“씨발, 듣기 싫다는데 왜 자꾸 신경질을 돋구실까. 놀 테면 빨리 한 번 놀고, 그렇잖으면 나는 갈테야.”

“알았어.”

나는 마치 물이에 쫓기는 토끼처럼 다급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 벽에 걸려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나는 펜스레 허둥대고 있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그것을 영자에게 심통스럽게 던져 주었다. 종잇장들은 마치 가랑잎처럼 날렸다.

그런데 영자는 그것을, 굶주린 사람이 허둥지둥 밥술을 떠 넣듯 그렇게 चु는 것이 아닌가. 비로소 나는 사람을 죽일 때와 마찬가지로 잔인스런 쾌감에 떠받치기 시작했다. 내가 난폭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너를 돈 주고 샀어. 옷을 벗어. 사그리 벗어 버리란 말야.”

“좋았어, 진작에 그렇게 나올 일이지.”

영자는 내 심정 같은 것은 아랑곳없이 기를 돌우어 말했다. 그리고나서 한 손만으로는 불편한 동작으로, 그러나 아주 익숙한 솜씨로 옷을 벗었다. 나는 마치 내가 죽인 시체를 내려다볼 때처럼 복잡한 마음으로 영자의 알몸뚱이를 내려다보았다. 민중하게 싹뚝 잘리워 나간 영자의 어깨를 보았을 때, 나는 까닭 없이 호흡이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영자의 전성시대』, 119)

영자에 대한 ‘나’의 온정적 태도는 차가운 응대로만 돌아온다. 영자는 이미 인정이나 의리 같은 감정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인지를 체득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감정의 올라가미에 다시 얽매여 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 또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순수함이

촌스러운 처세로 평가절하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둘은 단순한 교환관계에 들어선다. 서울의 ‘청량리 오팔팔’에서는 돈과 섹스의 물리적 교환만이 허락된다. 그리고 대부분 이 지점이 식모와 같은 하위주체들에 대한 남성적 폭력의 관점으로만 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교환의 장면마다 ‘나’는 전쟁에서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점이다. 소설은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하위주체의 적나라한 모습과 월남에서의 전쟁 경험을 자주 교차 서술한다. 싸구려 화장품들의 향료 냄새는 화약 냄새와 송장 썩어 가는 냄새를 환기하기도 하고(112), 자신의 남성을 과시하기 위해 월남에서 일곱 명의 베트남을 죽였다는 폭력의 경험을 소환하기도 한다(113). 위의 인용문에서도 영자의 불완전한 신체와 그녀에 대한 난폭한 언행이 월남에서 자신이 죽인 시체를 보는 것과 중첩된다.

‘나’가 보이는 온정과 폭력이라는 이중적 행위의 의미를 여기서부터 추적할 수 있다. 온정적이고 인간애적인 모습이 상대여성들에게 거부당하는 순간 그는 전쟁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고 폭력적인 남성의 모습으로 변장한다. 여기에는 목숨과 성의 거짓 등가교환만이 허락되었던 전쟁에서의 트라우마가 강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나’의 이중적인 행위에는 폭력의 대상에 대한 죄책감과 동질감이 내재해 있다. 월남에서 돌아와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하고 있는 자신도 신체를 통해 먹고 산다는 점에서 똑같은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라는 동질감과, 폭력을 당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데서 느끼는 죄책감이라는 이중 감정이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을 동질감으로 치환하려는 것에는 ‘윤리적 착각’³¹⁾이 숨어있다. 지책의 폭력에 대한 성찰을 잠시 환기하면, 어느 개인을 고문(폭력)하는 것이 멀리 떨어진 곳에 폭탄 투하 승인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인 이유는 후자 쪽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이런 윤리적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추상적 추론 능력이 발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반응으로 고통 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 대상에

31) 슬라보예 지책, 이현우·김희진·정일원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76쪽 참조.

대해 동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나’가 거리의 수많은 여자들과 이름 모르는 창녀들에게서 느끼는 무딘 감정과 달리 영자에게 느끼는 온정적 태도와 죄책감은 이런 윤리적 착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 전쟁에서의 일화는 ‘나’의 트라우마의 원초적 장면에 해당한다.

열대식물로 뒤덮여 있는 늪 근처의 마을 하나를 기습한 일이 있었다. 우리들이 그 마을을 평정하였을 때 마을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계집들뿐이었다. 하사가 내 귀를 끌어당겨서 속삭였다. “멋진 기회다.” 마을의 계집들은 전우들의 요구에 헤프게도 벌려 주었다. 그때도 나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못생긴 처녀 하나를 불필요하게 비상식량 한 상자를 주고 샀던 것이다. 소녀는 목이 가늘었다. 소녀는 풀대처럼 말라비틀어진 목을 도리질하며 저항했다. 소녀의 그 슬픈 저항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게 무지막지했다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지, 나는 매우 괴롭게 그 소녀의 국부를 향해 달려들고 있는 무서운 통증을 저어했었다. 나는 나의 난폭하게 돌기한 부분을 소녀의 밖에서 해결했다.

나는 어리석게도 영자의 그곳을 향해 달려들 통증을 상상하며 영자를 깊숙이 점령했다. (『영자의 전성시대』, 120)

전쟁에서의 살해와 합의된 강간이라는 폭력의 경험은 ‘나’에게도 상당한 충격이었던 듯하다. 점령당한 마을의 여자들은 “헤프게도” 자신들의 성을 허락했다고 서술되고 있지만, 사실 이 성적 폭력은 암묵적인 교환 관계의 성립에 기초하고 있다. 목숨과 성의 맞바꿈. 마을의 처녀들은 군인들에게 자신의 성을 상납하고 목숨을 얻는다. 물론 여기에는 전쟁에서의 패배와 폭력의 비등가성이라는 일방적인 위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평소라면 이 교환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전쟁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생사여탈권과 폭력의 정당화가 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마치 식모들의 생사여탈권(돈과 서울에서의 생활권)을 쥔 주인집 남자들에 의한 겁탈이 암묵적인 교환으로 인식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사실 이런 관계에 익숙하지 않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입대 전부터 한 번도 권력의 우위에서 성을 요구해보지 못한 하층 노동자였다. 서울 여자들 앞에서는 한 없이 위축되고 촌스러운 무작정 상경 소년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창숙에게 성을 사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을 알고 있지 못했다. 때문에 ‘나’는 당연한 권력을 뻔뻔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비상

식량'을 건네는 행위를 하게 된다. 비상식량을 마을의 처녀에게 주는 행위는 목숨과 성의 등가교환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랑과 인간애를 갈구하는 의미를 띤다.

사실 이 행위는 자신은 폭력적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차이점을 형성함으로써 죄책감에 가면을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이 비상식량은 '나'가 영자에게 과거의 일들을 물어보면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미 운락의 길에 들어선 영자에게 그것은 무의미했던 것처럼, 그 월남 소녀가 “목을 도리질하며 저항”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목숨과 성을 바꿀 수는 있지만, '나'의 죄책감을 용인할 의무가 그녀들에게는 없다. 정서적 교감은 허락되지 않는다. '나'가 영자나 월남의 소녀에게 건네는 죄책감과 인간애적 욕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들은 '나'에게 성 이상의 것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이유도 없을뿐더러, 폭력주체의 죄책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결국 '나'의 어설플면 면죄 행위는 실패로 끝나고 피폭력의 대상인 여성들은 무서운 '통증'으로 당시를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죄책감을 대상에게 전이시키지 못하고, 그 죄책감을 계속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남자에게 남은 트라우마의 원인이다. 이 증상은 자신이 죽었던 시체들과 강간했던 여성들처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취약한 타자들을 대할 때마다 강박적으로 등장한다.

사실 돈과 성을 등가적인 교환으로 생각하는 '나'의 인식부터 폭력적이다. 제3세계 여성하위주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스피박이 분노했던 이유는 바로 서구 유럽의 제국주의 논리가 그들 스스로를 야만적인 문화로부터 제3세계에서 착취당하는 여성들을 구원하는 주체로 설정했다는 데 있었다. 서구의 논리는 비동일성을 동일성의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3세계 여성하위주체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³²⁾ 남성 화자가 영자와

32) 스피박은 시르무르의 여왕 라니가 식민무역 및 통치의 편의를 위한 “부족 국가” 복원 계획 및 인도의 과부 순사(殉死) 제도인 사티(sati)와 관련하여 기록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문서보관소의 자료들을 통해서 추적되는 시르무르의 라니는 철저하게 영국의 영토적·경제적 이익과 관련되어서만 기록될 뿐이다. 스피박은 역사적 현실 역시 재현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라니를 사티와 연결시킨 영국 제국주의를 스스로를 합법화하기 위해 식민지 여

월남 소녀에게 가지는 온정적 태도는 자신을 전쟁과 근대화의 폭력적 확장에 희생되는 대상들을 구원해주는 계몽적 존재로 위치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다. 전쟁에 참여했지만 자신은 폭력과 무관하다는 인식과 영자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본다는 온정적인 시선은 자신을 슬그머니 폭력의 카르텔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선은 근대의 폭력적 담론이 인간애적인 채무장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스피박의 논법으로 ‘나’는 그녀들을 ‘대표’할 수는 있지만 ‘묘사’할 수는 없다.³³⁾ ‘나’의 행위는 그녀들을 자신의 인간성을 증명하기 위해 소환하고 다시 버리는 폐제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자의 인간성 증명의 노력이 실패하면서 남성 주체로서 ‘나’가 느끼는 죄책감은 국가라는 폭력의 가해자가 느껴야 할 부담으로 잔존하게 된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남자의 온정적인 태도는 여성하위주체들에 대한 국가적 폭력을 은폐하는 역할을 의도치 않게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노력의 실패가 국가 폭력에 내재하고 있는 또 다른 비가시적 폭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작가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와 마을을 잃은 전쟁터 여성들과 고향을 떠나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배제된 율락여성들 모두 전쟁과 근대화라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들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런 병치를 통해 소설은 일상적 폭력에 대한 무감각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있다.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는 이 지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성을 자유롭게 해주는 척하면서 씹먹는 과정을 밝혀낸다. 스피박이 분노하는 지점은 여성으로서의 라니는 자기-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려고 하는 존재로 썩어지고, 식민 주체인 유럽 남성 장교는 그녀들을 가부장적인 담론에서 구해주는 계몽적 존재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목적은 효율적인 지배와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태도 말이다. 제국주의 담론이 페미니즘 담론으로 재무장하는 순간이다. 가야트리 스피박, 앞의 책, 330~347쪽.

33) 스피박은 재현을 ‘묘사’와 ‘대표’의 의미로 분리해서 사용한다. ‘묘사’는 ‘다시-제시(re-presentation)’하는 수사로 대상의 목소리를 담지만, ‘대표’는 ‘~를 위해 말하다(speak for)’라는 방법으로 말하는 자는 제외되어 있는 수사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가야트리 스피박, 앞의 책, 363~367쪽.

IV. 정착의 실패와 응크린 국가폭력

영자의 꿈은 괜찮은 남자와 ‘살림’을 사는 것이었다. ‘살림’이라는 단어에는 불안정의 느낌이 스며들어 있지만, 임시적으로나마 서울이라는 공간에 정착했다는 표식이자 가정이라는 공적 공간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비록 그 형태가 방 한 칸의 허름하고 초라한 것일지라도, 단 한 명의 남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행위 자체가 희망일 수 있다. 그러나 시대는 이들에게 이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외팔이 영자에게 의수를 만들어 준다. “목욕탕의 보일러실 창고에서 팔뚝만한 굵기의 부서진 의자다리”로 만든 의수는 비록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소맷자락 속에 의수를 달고 어두운 골목길”(『영자의 전성시대』, 123)로 진출한 “영자의 활약은 실로 눈부신”(125) 정도였다. 자신감을 찾은 영자는 “포주를 떼버리고 방을 한 칸 세를 내어 화장대랑 전축이랑 선풍기를 월부로 들여다가 오밀조밀하게 꾸며 놓고 그럴싸한 손님들을 한 오십 명쯤만 단골로 잡는다면 그에서 더 부러울 것이 없을 거라고, 영자는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126) 그즈음 ‘나’는 여름철 목욕탕 손님이 뜸해서 영자와 외상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영자의 뒤를 봐주다가 감옥에 다녀온 후 청량리 오팔팔에서 영자의 서방으로 통하게 된다. 그리고 영자의 소망은 방 한 칸 영업집에서 “전셋방 값만 모은다면 이제 발 씻고 살림을 차릴 테야”라는 다짐으로 낙착된다. 그러나 희망은 현실로 실현되지 못하고 영자는 시체로 발견된다.

세 구의 시체들은 마치 화염방사기에 타죽은 베틀공의 그것들처럼 시꺼멓게 그슬려 있었다. 물집이 터진 자리는 군데군데 시뻘겋게 익은 살덩이가 드러나 있었다. 그 세 명 속에서 영자를 찾아내기 어렵지 않았다. 영자는 외팔뚝이었으니까. 불에 그슬려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도 영자의 시체에는 역시 팔뚝 한 짝이 없었다. 나는 영자의 시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나는 이를 악물어 울음을 삼켰다. “이 바보야, 누가 널 보고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겠어, 누가.” 그러나 영자는 마치 장난기까지 섞인 말투로 “불은 내가 질렀는걸요”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나라도 지금 심정 같아서는 어디라도 한군데 싹 쓸어 불질러 버리고 싶었으니까 말이다. (『영자의 전성시대』, 137)

영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매음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당국의 방침 때문이었다. “특별시장 명의의 계고장”(133)이 청량리에 날아들었고, 골목 입구의 여기저기에는 경고판이 붙고 경찰들이 배치되었다. 이른바 “불도저 작전”은 “창녀들을 소탕”하고 그녀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기로 한 듯했다. 마치 “평정지역의 베트남 잔비들을 깨끗이 소탕했듯이 소탕시킬 계획”(132)이었다. 영자는 어렵게 이곳을 빠져나와 ‘나’와 함께 목욕탕에서 한 동안 기숙하다가 ‘나이롱 아줌마’에게 맡겨둔 돈을 찾기 위해 다시 청량리로 들어갔다가 원인 모를 화재로 죽게 된 것이다.

영자의 이런 죽음은 두 가지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첫째로 일시적이거나 ‘살림’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두 사람의 꿈이 영자의 죽음으로 폐기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착의 노력은 실패의 서사로 마무리된다.³⁴⁾ 둘째로 실패 서사의 배면에 감추어진 국가폭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용문에서 영자의 시체가 화염방사기에 타죽은 베트남의 시체처럼 묘사되고 있다. “시뻘 경계 익은 살덩이”와 외팔뚝이 시체에 대한 묘사는 생생한 생명의 잔인한 죽음을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준다. 이념의 갈등이 만들어낸 베트남 전쟁의 상처와 근대화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도시의 불안과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했던 행정권력의 폭력이 하나로 합쳐지는 장면이다. 이 둘은 국가가 이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위주체들의 신체와 생명에 가하는 일종의 폭거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해석이 필연적이고 작가의 의도임을 『지사총』을 통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연작의 성격이 강한 『지사총』과 『영자의 전성시대』은 영자와 창숙이 겪는 비극의 계보적 발생 원인을 국가폭력의 측면에서 추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작품의 인물은 중첩되어 있다. 『지사총』에서 영식은 『영자의 전성시대』에서의 화자인 ‘나’와 동일인물이다. 창숙과 영자는 이름도 그

34)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에서도 이런 종류의 희망은 유예된다. 통영에서 올라온 길너는 남씨라는 남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도 그와의 미래를 꿈꾼다. 하지만 잠시의 ‘살림’은 실패로 끝나고, 서로가 뜨내기 신세임을 확인하면서 헤어진다. 강영감의 첩 살기도 채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채 끝나 버린다. 처음부터 길너와 결혼을 생각했던 기상현에게는 그녀는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이러한 소설의 장치는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무작정 상경한 소년/소녀들의 미래에 ‘정착’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던 근대화 담론의 배제의 서사를 드러내준다.

대로 등장한다. 영식은 군대(월남)에 가기 전 어느 철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숙식하고 있고, 영자는 그 주인집의 식모로 있고, 창숙은 영식이 관계하는 창녀다. 추석 날 영식은 입대 영장으로 추리되는(영식은 까막눈이다) “특별 시장에 가서 온 속달우편”(14)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군대를 가버리게 되면 “양복점에서 재단사로 일하게 된다는가, 무교동의 한 화려한 술집에서 보타이를 메고 일”(16)해보고 싶은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고아원 출신의 무작정 상경 소년의 꿈이라는 것이 실상 이 정도였다. 마침 그때 창숙이 방문해서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에 제사를 간다고 하면서 동행을 요청한다. 그곳 이름이 지사총이다. 창숙과의 데이트 정도를 생각하고 따라나서 도착한 지사총은 “복원된 광화문과 같이 크고 아름다운 문”(22)을 지나 고궁처럼 단장된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왕릉보다 더 큰 무덤 하나가 거대하게 솟아올라”(22) 있었다. 그곳은 한국 전쟁의 과정에서 한꺼번에 학살당한 사람들의 무덤이었다. 창숙의 아버지는 거기 함께 묻혀 있었다. 경찰악대가 동원되고 국무총리와 특별시장이 참석한 “지사총제”라는 제사가 열렸다. 국가적으로 추모되는 행사였다. 지사총에 얽힌 이야기는 이러했다.

피에 굶주린 무리들은 그들이 체포한 인사들을 끌고 와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뒤의 지금 지사총이 있는 주변의 야산에 구덩이를 파내는 작업을 시키기 시작했다. 작업에 동원된 사람은 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 야산의 표피는 순식간에 시뻘건 황토가 드러나고 벌써부터 황량한 살기마저 띠었다. 며칠 후 중추의 달이 괴괴하게 내리비치는 밤이었다. 산 위에서 갑자기 쿵 부는 듯한 총성과 함께 단말마의 비명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총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악몽과 같은 하룻밤을 할아버지는 꼬박 새웠다. 이튿날 아침 피에 굶주린 이리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뒷산에는 그야말로 처참한 살육의 현장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뒷산은 표피가 일구어진 구덩이마다 철사로 묶인 시체들이 쏟아져 나온 창자를 끌어안고 넘어져 있었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시체들은 부패해 갔다. 시체의 상처마다 또는 입과 눈에도 구더기가 발생하여 득실거렸고 악취가 퍼져 나갔다.

(중략)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내가 물었다.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아마 내 질문은 너무 엉뚱했던 모양이었다.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 나를 핀잔했다. “사람도 원 딱하군. 죄를 지어선가 저들

의 반대편이니까 그렇지.” (『지사총』, 29~30)

창숙의 아버지는 전쟁의 과정에서 희생되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지사총 근처에 살고 있는 어느 할아버지의 증언처럼 죽음의 원인은 그저 “저들의 반대편”이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빨건 황토”나 “쏟아져 나온 창자를 끌어안고 넘어져” 있는 시체에 대한 묘사는 앞서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불에 타 죽어간 영자의 시체에 대한 묘사를 떠올리게 한다. 영자의 시체가 베트남의 시체와 병치된다면, 여기서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당한 억울한 사람들의 시체들이 그 위에 중첩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작가의 필연적 장치로 읽힌다.

소설 말미에 밝혀지는 사실이 있다. 영식이 입대 영장으로 착각한 우편물은 사실 “지사총계” 참석 안내장이었다. 영식을 문맹으로 처리한 소설적 장치는 그도 지사총에 묻혀 있는 어느 희생자의 유가족이었다는 사실로 귀결되면서 도시 하위 주체인 영식과 창숙을 하나의 계통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지점에서 영식과 창숙이라는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의 발생적 계보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작가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소년/소녀들의 불우하고 미래 없는 성장기의 형성근원에 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1960~70년대 생명정치 도시 공간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던 전쟁이라는 국가폭력을 재소환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영자의 전성시대』와 『지사총』의 시체와 죽음에 대한 묘사가 중첩되면서 필연적 장치로 읽힌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가는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도시하층민으로서의 삶의 근원적 이유로서 두 개의 전쟁(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념의 상흔은 모습을 바꾸어 도시하위주체들의 삶에 지워지지 않은 낙인을 남겼다. 작가는 영식과 창숙을 전쟁이라는 이념적 갈등이 낳은 사생아들로 서술하고, 이들이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가 될 수 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로서 국가폭력이라는 장치를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이다. 조선작의 연작은 ‘식모-여차장-창녀’로 이어지는 여성하위주체들과 ‘고아원-용접공-파병-때밀이’로 이어지는 남성하위주체들을 모두 근대화 과정과 전쟁이라는 국가폭력의 과정에서 지울 수 없는 자국으로 호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조선작의 소설에서 하위주체들의 형상은 국

가폭력이 남긴 상흔이며 배제의 자국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 국가폭력이라고 명명한 이 폭력의 의미와 그것이 식모-창녀로 이어지는 하위주체들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V. ‘주관적 폭력’과 ‘객관적 폭력’

식모의 존재가 주인집 남성의 성적 욕구를 폭력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폭력의 대상이라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공통적 논지이다. 생사여탈권과 연관된 경제적 위계와 식모를 하녀로 바라보는 봉건적 사고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회적이고 강압적인 형태의 폭력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착시킨다. 다시 말해 ‘주관적(subject) 폭력’과 ‘객관적(objective) 폭력’을 동일선상에서 인식해서는 안 된다.³⁵⁾

사악한 개인이나 억압적인 공권력과 같은 주관적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는 사실 어떤 징후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형태의 폭력을 시야에서 감추게 함으로써 문제의 진정한 중심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35) 지젝은 폭력의 양상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전쟁이나 폭동, 공권력과 같이 행위자가 명확하고 눈에 보이면서 사회적이고 강압적인 형태의 ‘주관적(subject) 폭력’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징후적으로만 드러나는 ‘객관적(objective) 폭력’이 그 두 가지다. 객관적 폭력은 다시 하이데거가 존재의 집이라고 규정한 언어를 통해 구현되는 ‘상징적(symbolic) 폭력’과 정치와 경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일상성을 유지하려는 ‘구조적(systemic) 폭력’으로 구분된다. 본 글은 이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음에 주목하면서 남성 폭력과 국가 폭력의 양상을 구분하려 한다. 남성 폭력은 식모-창녀와 같은 여성하위주체들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가해지는 ‘주관적 폭력’과 같다. 반면 국가 폭력이 작동할 때 전쟁처럼 가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드러나지 않는 ‘객관적 폭력’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려 한다. 본 글에서 이후에 사용되는 ‘구조적 폭력’이나 ‘상징적 폭력’은 모두 객관적 폭력의 의미를 지시하며, 이는 전쟁과 행정명령과 같이 가시적인 국가 폭력이 근본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비가시적인 ‘객관적 폭력’을 드러내기 위한 징후로 해석하고 있음을 밝힌다. 폭력의 양상에 대한 정리로,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37쪽~41쪽.

있는 징후” 말이다.³⁶⁾ 폭력이라고 할 때 대개 즉각 범죄와 폭동 전쟁과 같은 것들을 떠올린다. 식모에 대한 남성들의 성적 폭력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모든 의미의 폭력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행위자가 저지르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주관적(subject) 폭력’일 것이라는 인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 배경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관적(subject) 폭력’은 정상적이고 평온한 상태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때문에 행위자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배경을 보려는 노력을 은폐시켜 구조에서 눈을 돌리게 한다. 우리가 눈을 돌리는 바로 그 자리가 ‘객관적 폭력’의 위치이다. 일상성의 유지를 위해 작동하는 ‘객관적 폭력’은 바로 이 정상적인 상태에 내재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을 때 우리가 놀랄 만큼 무감각하다는 사실이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일상성은 이 구조적 폭력의 비이성적 성격을 가려주는 안정된 장막이다. 고향을 떠난 무작정 상경 소녀들이 서울역을 배회하며 두리번거릴 때, 그녀들이 식모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면서 도시의 가정 공간에 하위 노동을 담당하는 주체로 안착할 때, 그녀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또는 잠재적 윤락녀라는 ‘요보호 여성’으로 불릴 때, ‘식모폐지론’과 과학적 ‘가정담론’에 의해 그녀들이 몸을 팔아야 하는 공간으로 내몰릴 때, 그리고 그런 그녀들을 ‘식모-창녀’처럼 하이픈으로 계열화하면서 정상적인 삶의 형태로부터 배제할 때, 영자가 ‘살림’이라는 꿈을 꾸다 참혹한 시체로 발견될 때, 언어적인 ‘상징적 폭력’과 일상성을 유지하려는 ‘구조적인 폭력’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 일상성의 유지라는 삶의 명령이 시대의 무감각을 가려주고 있을 뿐이다.

Ⅲ장과 Ⅳ장에서 남성 폭력과 국가 폭력을 구분하려했던 시도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시체와 청량리를 고립시키는 행정 명령과 같이 국가가 개입된 현상이 남성들의 성적 폭력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남성 폭력은 ‘주관적 폭력’처럼 행위자가 분명하고 가시적이다. 개인의 부도덕으로 귀결될 뿐이다. 하지만 대상 소설에서 식모들이 가정에서 배제되는 양상과 그녀들이 창녀로 전락하고 죽어가는 모습은 비가시적인 ‘객관적 폭력’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전쟁과 행정 명령(철거 계고장)처럼 가

36) 슬라보예지젝, 앞의 책, 37쪽.

시적인 형태를 보일 때조차도, 그 배후에 웅크리고 있는 상징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 국가 폭력이라는 표현은 바로 국가라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행위자의 심급에 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이 있음을 드러낼 때 차별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두 세계가 있다. 하나는 근대적이고 개방적인 ‘위험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낡고 은둔적인 ‘의미세계’를 보존한 안전 사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괴물들이 지키는 유한하고 폐쇄적 공간이다. 이 폐쇄된 유토피아적 공간에서 악은 단지 배제되는 것만이 아니다. 악은 가공의 위협으로 변형되고, 공동체는 그것과 일시 휴전을 수립하며, 그것을 경계하며 항구적인 비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³⁷⁾

1970년대의 가정담론은 안정된 의미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로 기능한다. 가시적인 폭력보다 상징적 폭력은 언어가 의미세계를 대상에 부과할 때 배제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친족과 혈연으로 구성된 폐쇄적 공동체라는 대상에 부여된 ‘가정’이라는 상징 언어는 식모를 ‘잠재적 범죄자’ 또는 ‘잠재적 윤락녀’라는 이름으로 배제하는 논리를 자연스럽게 생산한다. 하이데거나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명명한 것을 떠올린다면 ‘가정’과 이른바 ‘요보호대상’이라는 표현은 안정된 의미세계의 구축과 거기서 배제되어야 할 존재들을 명명한 것과 같다. II장에서 가정담론의 구축 과정에서 배제되는 식모들의 형상은 근대화라는 상징계적 질서 구축 과정에서 냉혹하고 추상적인 자본의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 ‘실재(The Real)’를 바라보게 한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형성과정에서 노동력을 보충하는 존재로서 근대화에 편입되었던 ‘식모’와 같은 무작정 상경 소녀들의 존재는 가정담론이라는 상징적 폭력에 의해 배제되었다. 쓰이고 다시 버려지는 폐제의 논리는 포함과 배제라는 이중적 작동의 논리를 보여주면서, 그 희생된 존재들의 시체를 짓밟으면서 미래로 나아간다.

‘가정’과 ‘살림’이라는 두 용어는 일상세계의 안정된 공간으로의 진입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자는 배제를 후자는 포함을 내포하고 있다. ‘가정’은 안정된 의미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량리 오팔팔’과의 항구적

37)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57쪽.

인 비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청량리는 식모였던 존재들이 가정에서 배제된 후 도시의 하위주체로 편입된 장소이다. 공간의 위계를 나눔으로써 식모들은 창녀라는 이름으로 하위공간에 위치한다. 이곳에 살고 있는 영자는 ‘살림’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살림’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냄새를 풍기지만, 하위주체의 삶이 가정으로 옮겨가기 위해 거쳐야 할 간이역과도 같다. 때문에 ‘살림’은 일상성의 안정된 공간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존재들의 불안한 언어적 표현이다. 이들의 노력이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소설의 남성인 ‘나’가 자신을 ‘영자’를 야만의 세계에서 구출하는 계몽적 존재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스피박의 논점으로 설명한 바 있다. 동양의 여성을 봉건적 질서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백인들의 노력은 서구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계몽적 주체의 예외적 사례를 전형화하면서 서구의 논리를 은폐시킨다. 조선작의 소설에서 보이는 ‘나’(남성)의 노력 또한 자신을 자본주의적 성교환과 비인간성이 지배하는 청량리라는 야만의 공간에서 ‘영자’를 구해내려는 계몽적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인간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죄책감을 해소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성공하는 것은 식모-창녀의 관계를 도시 하위주체 여성들의 필연적인 경로로 고착화시켜 그녀들을 안정된 의미세계에서 배제하는 구조적 폭력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때문에 ‘살림’의 실패는 하위 주체의 성공 신화를 생산하기보다 은폐되는 구조적 폭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한다.³⁸⁾

두 번째로 영자의 희망은 국가의 행정명령이라는 표면적 이유에서 기인한다. 창녀들을 ‘소탕’하기 위한 국가의 행정 명령은 근대의 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 상태의 선포와 같다. 식모-창녀의 존재를 ‘가공의 위협으로 변형’하고 이들과 항구적인 긴장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폭력의 모습이다. 청량리를 고사시키기 위한 행정권력의 작동은 마치 전쟁과 같은 비상상태를 연상하게 한다. 청량리의 비일상적 존재들이 고립된 공간은 마치 포로수용소와 같으며,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의 어둠을 틈 타 지붕을

3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와 손창섭의 『길』 또한 하위주체들의 성공과 정착의 신화를 생산하지 않는다. 두 소설에 등장하는 무작정 상경 소년과 소녀들은 ‘근대화’라는 언어로 지칭되는 안정된 의미세계로 편입되지 않고 길 위의 인생을 지속하면서 항구적인 긴장상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넘거나 전략을 수립하는 모습은 탈출을 모의하는 포로들과 같다. 비상상태를 선포하는 권리는 주권자에게 있지만,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가 지배하는 삶의 공간에서 권력의 모습은 언제나 은폐되어 있다. ‘살림’의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찾기 위해 다시 청량리에 야습한 영자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행정 명령이 그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도시의 일상성과 정상성을 유지하려는 구조적이고 내재된 폭력이다. 작가가 영자의 시체에 대한 묘사 위에 베트남 전쟁에서의 시체 이미지를 중첩시킨 장면이 바로 내재된 폭력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전쟁은 가시적인 폭력이다. 베트남에서의 시체는 가시적이고 주관적인 폭력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대로 국가의 행정 명령과 같은 형태는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적(구조적) 폭력의 모습이다. 영자의 시체는 비참하지만 가해자를 지목할 수 없다.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되기 쉽다. 하지만 작가는 이 두 시체를 병치한다. 전쟁이라는 가시적 폭력의 희생물과 체제의 안정을 위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물을 중첩시킴으로써 구조적 폭력에 무감각한 우리의 일상성을 드러나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영자의 시체는 전쟁의 시체만큼 참혹하다. 전쟁과 같은 폭력만큼 구조적 폭력도 죽음을 불러온다. 이 둘이 하위주체들의 삶에 기입될 때 크게 다르지 않음을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구조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놀랄 만큼 무감각하다. 정치체제 또는 경제체제의 일상성이라는 거대한 장막이 폭력의 비이성적 성격을 가리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폭력은 가시적이고 명백하게 악마적인 세력에 의해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폭력의 주체가 비가시적이라는 표현은 그 주체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모들을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배제했던 ‘식모폐지론’은 의미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언어적인 상징적 폭력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정’에서 내몰린 식모-창녀들을 ‘청량리’라는 공간으로 계도화한 후 그녀들을 소탕하기 위한 행정 권력의 명령은 항구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상성을 보존하려는 구조적인 폭력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관적 폭력처럼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명확한 행위자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객관적 폭력이 식모들의 폐제의 과정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조선작의 두 편의 소설은 전쟁의 피해자들과 식모-창녀들의 비참한 모습을 중첩하면서 내재

된 객관적 폭력이 주관적 폭력만큼 야만적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구조적 폭력의 장막은 일상성 위에서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장막이 벗겨지는 것은 한 순간 어떤 드러남으로 경험된다. 바디우적 의미에서 그 한 순간이 바로 ‘사건’³⁹⁾이다. 문학은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하지 않은 이 필연적 사건을 감지한다. 하지만 일상성의 무감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문학이 리얼리즘적 글쓰기 방법론과 소시민적 삶의 폭로라는 내용에 복무하다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던, 다른 표현으로 자기 뉘를 가지지 못했고 섹법에서 제외된 자⁴⁰⁾,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이 무감각에 해당한다. 최일남의 소설에서 식모 화자들이 자신들을 배제시켰던 ‘가정담론’의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아쉽지만, 문학적 글쓰기가 일상적 사건들의 이면에 내재된 구조적 폭력의 논리를 사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아쉽다. 이는 문학적 글쓰기라는 행위가 자기 뉘를 가지지 못한 자를 화자로 내세웠을 때 당연히 거처야 할 윤리적 물음이기 때문이다.

Ⅵ. 나가며 : ‘그녀들은 말할 수 있는가?’

1960~70년대 식모-창녀와 같은 도시의 여성하위주체들은 과거 식민시대의 하층민처럼 제국주의의 경제적 착취에 의해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누락된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탈식민주의적 형상에 가깝다. 때문에 이들은 근대화 담론의 과정에서 배제된 존재들이면서

39) 알랭 바디우, 『윤리학』, 이종영 옮김, 동문선, 2001. 84~85쪽. 바디우에게 ‘사건’은 “상황, 의견 및 제도화된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도래시키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것은 이미 굳은 인식만을 남기기 때문에 어떤 진리로 산출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진리와 질서 속에는 공백이 존재하는데, 잉여적 존재였던 것이 우연히 출현하는 사건이 진리를 촉발한다.

40) 본 글에서 식모-창녀의 형상을 도시의 하위주체로 지칭하는 근본적 이유는 그녀들이 도시에서 담당했던 노동의 형태보다도 그녀들이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자기 뉘를 가지지 못했고, 섹법에서 제외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삶이라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는 생명정치의 공포에 포획된 존재들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보충적 연구가 이후의 과제일 것이다.

식모라는 존재는 근대화에 동원되었던 다양한 기제들에 의해 끊임없이 배제되었다. 남성으로부터의 폭력과 근대적 가정 수립을 위한 가정담론이라는 기획의 외부에 놓인 존재였다. 때로 하위주체인 남성은 이들과 함께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이념적 대립의 피해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위치지만, 남성은 재폭력을 통해 그것을 반복하고 있고 여성은 끝내 피폭력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자의 전성시대』에서의 ‘나’는 영자와 베트남의 여성들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영자에게 의수를 만들어주고, 베트남의 여성에게 성적 교환의 대가로 비상식량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남자의 시도는 실패의 서사로 끝난다. 현실은 그에게 성과 폭력의 등가교환만을 허락했을 뿐 그 이상의 감정은 규제되었다. 월남에서의 성 교환은 여성의 몸 바깥에 사정하는 형태로 실패했고, 영자에 대한 남성으로서의 책임감은 그녀의 죽음으로 실패했다. 결국 남성 화자의 본질적 의미의 교환 관계 성립의 노력은 돈과 성이라는 일차적 교환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남성이 자신을 하위주체 여성들을 구원해 줄 계몽적 존재로 자리매김할 때 이미 그는 근대화 담론과 공모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도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의 논리를 공유하고 있음을 조선작의 소설은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은 전쟁이라는 가시적인 ‘주관적인 폭력’과, 언어의 선별적 사용을 통한 상징적 폭력 또는 일상성을 유지하려는 구조적 폭력과 같은 비가시적인 ‘객관적 폭력’을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비가시적 폭력의 야만성을 드러내 주었다.

또한 여성하위주체로서 식모는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지 못했다. 식모는 도시의 주변부에 기생하면서 근대화 담론에 포함되었지만 결국 지배 담론으로부터 이름을 얻지 못했다. 자기의 몫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식모들은 타자들에 의해서만 재현된다. 혹은 식모들이 화자로 등장하더라도 그것은 가족담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대리보충이거나 타자의 목소리였을 뿐이었다. 결국 식모들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아직 말 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들을 배제하는 식모폐지론의 논리가 식모의 목소리로 재현되는 모순적 차용방식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들은 타자

에 의해 재현됨으로써 배제되었다. 이는 문학이 구조적인 폭력에 무감각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근대 가족담론의 불순물로서의 식모와 조국 근대화의 하위 노동자로서의 식모라는 상반된 형상은 이와 같은 여성하위주체들이 근대화의 담론에서 포함과 배제라는 이중의 논리에 포획당한 존재들임을 보여준다. 조국 근대화에서 도시의 하층민으로서 하위 노동을 담당할 산업 역군, 또는 가정의 빈자리를 메워줄 대리보충으로서 그들은 근대화의 과정에 포함된다. 배제의 원리는 식모 폐지론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이 시대의 여성 담론은 주로 전문직 여성이나 핵가족 형태라는 가족모델 속 과학적 모성을 목표로 생산되었다. 이때 식모들은 가정 안에 존재하는 이물질이자 잠재적인 범죄자였다. 위생학적으로 그리고 근대 여성담론과 가족담론의 장에서 식모는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었다. 이때 여성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 생활의 기본적인 형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모델을 제시하고 기준에서 멀어지는 행태들이 사회적으로 고발되고 표준화된 삶의 형태로 낙착시키는 과정은 근대화 논리의 비정교함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근대성 일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구조적 폭력의 정교함을 보여준다. 무작정 상경 소녀들의 도시 하위주체로의 전략과 정착의 실패는 이런 포함과 배제의 논리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면에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비가시적인 ‘객관적 폭력’들이 숨겨져 있다. 때로는 언어의 상징화를 통해 구별짓기 식 폭력이 자행되었고, 때로는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근대화라는 이름의 구조적 폭력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폐제된 식모와 같은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과정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언어로 담아야 한다는 막연한 당위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막연하지 않은 사실은 소설이 1960~70년대 서울이라는 도시 하위주체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마땅히 비가시적인 폭력들의 거처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 『지사총』, 『성벽/징소리 外』(한국소설문학대계 66), 동아출판사, 1995.
- 최일남, 『너무 큰 나무』 / 『춘자의 사계』, 『꿈길과 말길 외』(한국소설문학대계 41), 동아출판사, 1995.
-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문학사상사, 1994.
- 전상국, 『전야』, 『우상의 눈물』, 민음사, 1980.

단행본

-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박미선 옮김,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갈무리, 2005.
-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원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 조르지오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3.
- 프란츠 파농,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 호미 바바,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논문

- 김문정, 『1960,70년대 서울과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의 서사』, 상허학보 41집, 2014.
- 김영삼, 『1960년대 소설의 정치철학적 연구』, 전남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15.
- 김원,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식모’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1호, 2004.
- 김인건, 『식모, 이 변함없는 인권의 푸대접』, 『여원』, 1966년 5월호.
- 김정화, 『1960년대 여성노동 - 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1호, 2002.
- 박수현, 『1970년대 식모와 남성 작가의 소설』, 한국언어문학 제91집, 2014.

‘객관적 폭력’의 비가시성과 폐제되는 식모들의 목소리

- 서연주, 『여성 소외 계층에 대한 담론 형성 양상 연구-『여원』에 나타난 사회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 2007.
- 서정자, 『가사노동 담론을 통해서 본 여성이미지 - 191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 여성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19, 1997.
- 손윤권,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식모의 양상』, 강원인문논총 제17집, 2007.
- 신건, 『1960~19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오창은, 『도시의 불안과 여성하위주체 - 1970년대 ‘식모’ 형상화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2, 2013.
- 유종주, 『인구의 도시집중 문제』, 『가족계획』 38, 1967.
-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이촌여성의 도시생활적응 및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 1974.
- 장창옥, 『식모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자』, 『여원』, 1957년 11월호.
- 최형남, 『주부생활』, 1969년 12월호.
- 황정미,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1960~70년대의 한국 부녀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여성』, 1965년 6월호/1965년 10월호/1968년 3월호/1969년 4월호.

Abstract

The Invisible 'objective violent' and Voice of Housemaid of women-subaltern

- With Focus on the Joe seon-jak and Choe il-nam's
Novels

Kim, Young-sam(Chonnam Univ.)

In 1960 ~ 1970, Seoul was the only hope to girls who came up to Seoul without anything else for escaping poverty. Maid was most easy way to settle down without skill and education, but by discourse on modernization and male violence, their life going through conductress and factory girl fell to prostitute. So, for this point most of earlier studies give an eye to male's sexual violence. However, this dissertation want to pay attention to the aspect that modernization's diverse mechanism exclude the female subordinate like maid or other female workers in society. Especially, difference of this paper is that state violence like war and discourse on homeland's modernization are in the hidden side of the male's sexual violence. In Joe seon-jak's 'young-ja's best days', 'Ji-sa-chong', male and female's sexual trade -subordinate subjects in modern times- is just trade on money and sex. In this exchange, their other emotional communications are severely restricted. Love between subordinate in modern city are finished as story of failure by state violence. Female subordinate subject's settlement is delayed and males guilty cannot be solved. So, Joe seon-jak's novel must be estimated in this point.

Also, maids were outsiders in modern discourse on family and female. Abolitionism of maid was derived from discourse on modernization. In

this process, maids could not speak their own voice. They were just reproduced by others. Literature gave them a voice, but it is substitute by author who criticize the discourse on family or voice that have discourse on modernization, not their own. Eventually, maids still could not speak their own story by their own voice and they were excluded because of others who reproduce maid’s story. This dissertation ask that how novel contains the subordinate subject’s voice through Choe il-nam’s ‘The Four Seasons of Chun-ja’, ‘Too big a tree’.

Maids was a double victim to exploitation that coincidentally was included and excluded in discourse on modernization, and they were witness and sacrifice of life politics in one that their whole life was object of governance in 1970.

▣ 주제어 : 식모, 창녀, 하위주체, 객관적 폭력, 국가폭력, 가정 담론, 조선 작, 최일남, 『영자의 전성시대』, 『춘자의 사계』.

▣ Key words : Housemaid, servant, Prostitute, subaltern, the 1970s, novel, State violence, Modernization of the discourse, Biopolitics, Joe seon-jak, Choe il-nam.

접수일자: 2016. 3. 28 심사일자: 2016. 4. 19 게재결정: 2016. 4. 28